

이달의 어항 ㉞ - 강릉시 금진항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의 중심, '금진항'

수로부인 설화와 '기적의 온천수'로 관광어항 발돋움



주문진, 사천 등과 함께 강릉·동해지역의 주 활어 공급지 역할도 맡고 있다. 어업인들은 주로 자망 어업을 하는데 소형 어선들은 수심 150m이내에서 가자미와 광어 등의 활어를 잡고, 중형어선들은 수심 700m까지 나가 넙치와 가자미, 곰치 등을 잡는다.

그 옛날 미모의 수로부인이 용에게 납치되었다가 마을사람들의 농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던 이야기나 노인이 목숨을 걸고 꽃을 꺾어 바쳤다면 것은 설화일지 모르지만, 빼어난 경관이 연출하는 신비롭고 위압적인 분위기만큼은 생생한 현장감 그 자체다.

최근 강원도와 강릉시는 금진·심곡지구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사업 계획을 밝혔다. 금진 일대 260만평에 조성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외국인 투자 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9,584억원, 약 1조원가량이 투자되는 거대한 규모이다. 기업도시가 조성되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2만여명의 고용창출, 2조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측면에서 볼 때 지역발전을 5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금진항 일대가 개발가능지역으로 선정된 데는 천혜의 청정해역과 해안단구의 절경이 만들어 내는 경관 외에도 지하 1,100m 깊이에서 끌어올린 온천수의 몫이 컸다.

금진 일대 온천수는 일반 광천수에 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미네랄 농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성분이나 효과 면에서 세계적인 희소성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심지어 '기적의 물'이라고 알려지면서 일반인을 비롯한 난치병 환자, 운동선수 등 온천이 개발된 이래 입소문을 타고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또, 금진항 선착장에는 금진일대에서 정동진 앞바다까지 강동6진의 해안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람선이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특히 아침 첫 출항은 일출시간에 맞춰 짜여져 있는데 이것 또한 금진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출 관광명소로 한반도 어디어디를 꼽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보는 일출 광경은 말을 잊게 만들 것이다.

♣ 가는 길

강릉JC→옥계면(옥계C)→7번국도→금진리

아침 8시께 금진항에서 는 경매 입찰이 이루어진다. 그 전에 어판장에서 어업인들로부터 직접 횡감을 구할 수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3만원이면 아구, 우럭, 삼치같은 싱싱한 횡감, 매운탕거리를 푸짐하게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말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과 낚시꾼들로 물양장과 방파제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

인근 심곡까지는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을 따라 7번국도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브코스로 알려진 '현화로' 라는 길이 있다.

금진과 심곡이 2.4Km, 5분 거리로 연결되는 현화로에는 신라시대 수로부인에게 절벽의 꽃을 꺾어 바쳤다는 촌노의 설화가 전해진다. 절벽이 잘라낸듯 높고 험한데다가 바다와 바로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절경이 되기도 하지만, 바람이 조금 불기라도 하면 달리고 있는 차 옆으로 파도가 내리쳐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서울 사람들이 강릉 경포대를 향해 떠날 때, 강릉 사람들은 강동6진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다.

강릉의 강동6진은 강동면 안인진에서부터 남쪽으로 차례로 등명진, 정동진, 심곡, 금진, 옥계로 이어지는 어촌들을 말하는데, 강릉 일대에서는 최고의 해안 절경지로 손꼽힌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모두가 걸출한 관광지라고 하나, 강동6진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어항이 있어 찾아가 본다. 이달에 찾아가갈 국가어항은 강릉 금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위치한 금진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1980년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하고, 1983년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을 거쳐 현재 안정적인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까지 방파제 640m, 방사제 210m, 물양장 454m, 선양장 30m가 완공되었고, 보급시설로 위판장 320.6㎡, 공동 창고 791.5㎡가 마련되어 명실상부한 국가어항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수산업은 전업 32가구 120여명, 겸업 20가구 70여명, 지방어선이 60~70여척, 문어, 가자미, 송어 등을 주어종으로 한 연간생산량이 405MT이다.

금진항은 접안 시설이 뛰어나 일대 어선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거점 어항이다.